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369-377,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두리[1], 임효남[1], 김진일[2*]
[1]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Doo Ree Kim[1], HyoNam Lim[1], Jin-il Kim[2*]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셀프리더십은 조직과 개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로 D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창의성(r=.546, p<.001), 자기주장(r=.217, p=.004) 및 자아존중감(r=.258,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β=.212, p=.001), 학년(β=.123, p=.060), 대인관계 '매우 좋음'(β=.327, p=.007), '좋음'(β=.395, p=.023), '보통'(β=.328, p=.040), 창의성 (β=.578, p<.001) 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은 35.5%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창의성 및 대인관계를 포함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 융합,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자아존중감

Abstract Self-leadership is a positive factor for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and it is a necessary competency for nursing students.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173 nursing students in D c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eativity (r=.546, p<.001), self-assertion (r=.217, p=.004) and self-esteem (r=.258, p=.001). In additi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were gender(β=.212, p=.001), grade(β=.123, p=.0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β=.327,p=.007), 'good'(β=.395, p=.023), 'moderate' (β=.328, p=.040) and creativity(β=.578, p<.001). Explanatory power was 35.5%. It is noteworthy to consider creat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developing strategy to improv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Creativity, Assertiveness, Self-esteem

1. 서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간호사에게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함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1].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간호사는 간호의 질 향상이라는 전통적 역할 수행 이외에도 정책결정, 환자안전, 다학제간 협력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중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리더십은 신입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보고되고 있다[2]. 여러 유형의 리더십 중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Fund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Jin-il Kim(neoreva@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3, 2020 Revised March 9, 2020
Accepted March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위에 따른 권위나 복종을 강요하는 것에 기반을 둔 전통적 리더십 개념을 지닌 권위적 리더십과 차별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업무 태도 및 성과 향상과도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3, 4].

최근의 간호학 분야의 리더십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실무에서 셀프리더십을 비롯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교육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5]. 또한 셀프리더십이 간호성과 향상 뿐 아니라 직무만족을 높여 이직의도를 낮추는 등 조직과 개개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향후 간호업무를 수행할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 역량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6]. 한편, 셀프리더십이 개인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7]가 있었으나 주로 개인 특성과 관련된 변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셀프리더십의 개념 및 관련 요인에 대한 고찰에서 창의성이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8]. 창의성은 기대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9], 향후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임상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10]. 특히,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통제위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의성이 제시되고 있다[11].

한편, 자기주장은 간호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역량일 뿐 아니라 간호교육에 필수적인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요한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12]. 자기주장의 정도가 효과적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대학생의 리더십에 대한 암묵적 요소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기주장이 리더의 주된 특성 중 하나로 나타난 결과도 셀프리더십과 자기주장 간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14]. 또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주장 훈련과 창의성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음[15]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창의성 및 자기주장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7, 18]. 성격요인과 셀프리더십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셀프리더십 중재의 효과성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19, 20]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셀프리더십과 개인 관련 변수들, 즉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변수를 중심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창의성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11], 및 자아존중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18]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통제위와 같은 다른 변수에 따른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였다. 따라서 전통적 리더십이 아닌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알아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로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을 대상으

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하기 위해 G-Power ver. 3.1.9프로그램[2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측변수를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11개로 적용한 결과 적정표본 수는 178명이었다. 이에 탈락률(약 15%)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설문을 불성실하게 응답한 27명이 제외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는 173명이었다.

2.3 연구도구

•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hton and Neck [22] 이 개발한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를 Shin, Kim과 Han [23]이 번역하여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Kim [24]의 연구에서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된다. 도구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0-.87이었고, Kim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 창의성

창의성 측정도구는 Jeong와 Park [25]이 개발한 일상적 창의성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독창적 유연성' 8문항, '대안적 해결력' 5문항, '모험적 자유추구' 5문항, '이타적 자아 확신' 6문항, '관계적 개방성' 6문항, '개성적 독립성' 3문항 및 '탐구적 몰입'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계산하였고, '모험적 자유추구' 1문항, '관계적 개방성' 2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다.

• 자기주장

자기주장 측정도구는 Rathus [26]의 Assertiveness Scale을 Ha 등[27]이 번역한 도구로 Jang [28]의 연구에서 이용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자기주장' 13문항과 '부정적 자기주장' 17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고, 행동의 빈도가 10회 중 '9번 이상'이면 5점, '7-8회'이면 4점, '5-6회'이면 3점, '3-4회'이면 2점, '1-2회'이면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장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부정적 자기주장의 17문항은 역환산하였다. 개발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8이었으며 Jang [2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6]가 개발하고 Jon [29]이 번역한 도구로 Ryu [30]의 연구에서 이용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측정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동의한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으로 점수화하였고 부정문항 중 5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으며 Ryu [3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수행을 위해 본 연구자는 K대학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KIRB2016-052).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수업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20분 내외), 자발적인 연구참여, 언제라도 연구참여에 대한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한 후 취약계층인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준비한 설문지, 동의서 두 개의 상자에 제출하고 이를 과대표를 통해서 전달받아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였다. 또한 대상자 보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였다.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s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t=-3.425, p=.001), 성별(t=2.467, p=.022), 대인관계(F=4.972, p=.002), 성격(F=3.506, p=.017)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셀프리더십이 높았으며, 대인관계는 '좋지 않음'에 비해 '매우 좋음', '좋음'이, 성격은 '부정적'에 비해 '매우 긍정적' 일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3.68점(SD=.48)이었으며, 창의성은 3.64점(SD=.43), 자기주장은 3.13점(SD=.51)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2.94점(SD=.50)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f-leadership, creativity, assertiveness,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n=173

Variables	M±SD	Range
Self-leadership	3.68±.48	1-5
Creativity	3.64±.43	
Assertiveness	3.13±.51	
Self-esteem	2.94±.50	1-4

3.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 정도와의 관계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연구대상자의 셀프

Table 1. Differences of self-leader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ategories	n(%)	M±SD	t/F(p)
Age	<22 ≥22	115(66.5) 58(33.5)	3.66±.49 3.71±.49	-.734 (.464)
Grade*	Lower grade (1-2nd) Upper grade (3-4th)	69(40.1) 103(59.9)	3.53±.47 3.78±.47	-3.425 (.001)
Gender	Female Male	155(89.6) 18(10.4)	3.71±.48 3.42±.46	2.467 (.022)
Religion	Yes No	75(43.4) 98(56.6)	3.70±.46 3.66±.51	.485 (.629)
Grade point average*	<3.5 ≥3.5	75(50.0) 75(50.0)	3.59±.41 3.73±.53	-1.795 (.075)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a] Good[b] Moderate[c] Bad[d]	15(8.7) 110(63.6) 42(24.3) 6(3.4)	3.90±.44 3.72±.46 3.55±.50 3.15±.40	4.972 (.002) d<a,b[†]
Personality	Very positive[a] Positive[b] Negative[c] Very negative[d]	16(9.2) 130(75.1) 24(13.9) 3(1.7)	3.90±.45 3.70±.47 3.44±.49 3.47±.87	3.506 (.017) c<a[†]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unsatisfied Satisfied Unsatisfied Very unsatisfied	21(12.1) 118(68.2) 30(17.3) 4(2.3)	3.82±.51 3.66±.48 3.62±.49 3.74±.45	.770 (.512)

* Missing data exist
† Scheffé's test

Table 3. Correlation among creativity, self-efficacy, thinking ability, level of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n=173

	Self-leadership	Creativity	Assertiveness
Creativity	.546 (<.001)		
Assertiveness	.217 (.004)	.513 (<.001)	
Self-esteem	.258 (.001)	.489 (<.001)	.438 (<.001)

리더십과 창의성(r=.546, p<.001), 자기주장(r=.217, p=.004) 및 자아존중감(r=.258, p=.001)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입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년, 성별, 대인관계, 성격을 예측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성별, 학년, 대인관계와 성격은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 셀프리더십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창의성, 자기주장,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수로 선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263~.903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108~7.935로 기준값 10보다 작아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예측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9.559, p<.001),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β=.212, p=.001), 학년(β=.123, p=.060), 대인관계 '매우 좋음'(β=.327, p=.007), '좋음' (β=.395, p=.023), '보통'(β=.328, p=.040), 창의성 (β=.578,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은 35.5%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에 비해 여자가, 대인관계가 '좋지 않음' 보다 '매우 좋음' 또는 '좋음', '보통' 인 간호대학생이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점수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7]에서 나타난 3.6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3.56점[18] 및 3.43[31]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Kwon, Cho와 Choi [18]의 연구대상이 1학년이었던 점과 Lee, Lee와 Kim [31]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1학년이고 고학년이 상대적으로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던 결과를 감안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역량이 일부 함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 역량이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n=173

	B	SE	β	t	p
Constant	.596	.358		1.662	.098
Gender	.335	.103	.212	3.263	.001
Grade	.060	.032	.123	1.896	.060
Interpersonal Relationship_Very good	.562	.206	.327	2.732	.007
Interpersonal Relationship_Good	.398	.173	.395	2.303	.023
Interpersonal Relationship_Moderate	.370	.178	.328	2.076	.040
Personality_Very positive	-.158	.168	-.095	-.942	.348
Personality_Positive	-.011	.099	-.010	-.114	.909
Personality_Very negative	.303	.246	.082	1.232	.220
Creativity	.653	.089	.578	7.311	<.001
Assertiveness	-.058	.073	-.061	-.797	.426
Self-esteem	016	.078	.017	.212	.832
R^2=.397, Adjusted R^2=.355, F=9.559,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대인관계, 성격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과 셀프리더십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었다[11, 32]. 그러나 성별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31, 33]도 있어 성별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3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차이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달랐음을 보고한 연구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35]. 또한 성격에 따라 셀프리더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 안정적 심리상태를 갖추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해석[18]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긍정적 성격을 가진 학생이 부정적 성격을 가진 학생에 비해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긍정적 성격이 리더십 수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36]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준다.

셀프리더십,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성공적인 문제해결에 중요한 것으로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과 창의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자기주장의 경우 셀프리더십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의사소통 역량이 셀프리더십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37]와 자기주장과 의사소통능력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28]가 이러한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 간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결과도 종합병원 간호사[38] 및 간호대학 1학년 학생[18]에서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 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연구보고와 유사한 연구결과였다. 종합해보면 졸업 후 간호사로 취업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셀프리더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상기 관련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필요시 비교과과정을 통해 관련요인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창의성, 성별, 학년, 대인관계 정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내·외적 통제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제위 성향과 상관없이 창의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1].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고[3], 창의성은 내적동기에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39], 두 변수 모두 자신의 행동의 통제에 중요한 변수이며, 셀프리더십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의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료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간호사의 창의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정신력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임상현장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 보고가 있었다[40]. 따라서 임상에 근무하기 전인 대학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성별이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은 리더십의 영향 요인이나 주된 요인은 아니고, 여성의 경우 하급자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보고[41]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여성에서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요인은 아니었으나 여자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1]. 그러나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42],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셀프리더십 향상 방안 마련에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고학년일수록 셀프리더십의 점수가 높았을 뿐 아니라 학년의 차이가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중 셀프리더십 역량이 함양되는 추세를 보이나 졸업 후 간호사의 역량 수준과 대학생간 차이가 크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31, 43, 44], 교육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45, 46] 저학년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면 졸업 시 높은 수준의 셀프리더십 역량을 갖춘 후 간호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가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셀프리더십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18, 47]. 또한 간호대학 4학년 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자기관리역량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48]. 셀프리더십의 일종인 자기관리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요인이고, 대인기술에 영향을 미쳐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50], 대인관계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창의성 및 대인관계의 경우 이들 변수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중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51, 52]에서 셀프리더십 역량 함양을 방안 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을 비롯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D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의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창의성, 자기주장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년, 대인관계 및 창의성으로 나타났다.

간호실무에서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 함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창의성 및 대인관계를 향후 셀프리더십 강화 전략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과 지속적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Fukada. (2018). Nursing competency: defini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Yonago Acta Medica, 61(1),* 1-7.
DOI : 10.33160/yam.2018.03.001

[2] S. Karkada & S. Cherian. (2017). A review on leadership in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4(1),* 58-66.
DOI: 10.15509/IJNRP.2017.4.1.347

[3] G. Stewart, S. Courtright, & C. Manz. (2011). Self-leadership: a multilevel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7(1),* 185-222.
DOI: 10.1177/0149206310383911

[4] S. Dinham. (2007). Authoritative leadership, action learning and student accomplishment. The leadership challenge: improving learning in schools. *In Proceedings of The leadership challenge : improving learning in schools, Camberwell, Victoria, Australia,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

[5] J. S. Kim, Y. M. Kim, K. S. Jang, B. N. Kim & S. H. Jeong. (2015). Concept analysis of nursing leader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575-586.
DOI : 10.11111/jkana.2015.21.5.575

[6] H. J. Won & S. H. Cho. (2013). A review of research on self-leadership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82-393.
DOI : 10.11111/jkana.2013.19.3.382

[7] O. Ugurluoglu, M. Saygili, O. Ozer & F. Santas. (2015). Exploring the impacts of personal factors on self-leadership in a hospit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Planning and Management, 30(1),* 3-13.
DOI : 10.1002/hpm.2199

[8] A. S. Barzoki & H. Teimouri. (2008). The role of self-leadership in innovation and creativity employee.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ulture and Change Management, 9(1),* 49-61.
DOI: 10.18848/1447-9524/CGP/v09i01/50720

[9] M. A. Runco & S. R. Pritzker. (2011). *Encyclopedia of creativity.* San Diego, CA: Academic Press.

[10] J. Y, Park, C. H. Woo & D. R. Kim. (2017). Factors influencing crea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107-115.
DOI : 10.15207/JKCS.2017.8.5.107

[11] J. Y Choi & S. B. Im. (2018).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locus of contr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182-192.
DOI : 10.11111/jkana.2018.24.3.182

[12] S. M. Lee, Y. H. Ryu & J. H. Kim.(2018). The impacts of assertiveness on attitudes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326-336.
DOI : 10.5977/jkasne.2018.24.4.326

[13] J. C. Santora. (2007). Assertiveness and effective leadership: Is there a tipping point? *Th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1(3),* 84-86.
DOI : 10.5465/amp.2007.26421241

[14] E. I. Jeong. (2010). Implicit yheory of college students about leadership and characteristics of creative leaders in their college adjustment.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2),* 135-162.
DOI : 10.15753/aje.2010.11.2.006

[15] E. Stegmann & E. van Zyl. (2012). Self-leadership: The way forward for African manager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6(1),* 118-128.

[16]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 M. H. Nam & M. R. Lee. (2019). Effect of self leadership and self esteem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465-477.

[18] Y. E. Kwon, I. H. Cho & E. A. Choi. (2019).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self-leadership : the case of nursing college freshma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385-395.
DOI : 10.35873/ajmahs.2019.9.7.035

[19] S. Williams. (1997). Personality and self-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7(2),* 139-155.
DOI : 10.1016/S1053-4822(97)90020-6

[20] J. Houghton, T. W. Bonham, C. Neck & K. Sing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personality: A comparison of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9(4),* 427-441.
DOI : 10.1108/02683940410537963

[21]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60.
DOI: 10.3758/BRM.41.4.1149

[22] J. Houghton & C. Neck. (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 10.1108/02683940210450484

[23]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340.

[24] W. G. Kim (2013). *The effects of Korean enneagram program on the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5] E. I. Jeong & Y. H. Park.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creativity scale.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7,* 155-183.

[26] Rathus, S. A. (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3),* 398-406.
DOI : 10.1016/S0005-7894(73)80120-0

[27] Y. S. Ha et al. (1983).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for aggressive-passive undergraduate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16(1),* 1-50.

[28] J. Y. Jang. (2010). *The Relation among nurse's assertive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9]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30] Y. Ryu. (2015).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on self-esteem, character strengths, emotional 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31] M. Lee, M. Lee & S. Y. Kim. (2015).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417-425.
DOI : 10.5977/jkasne.2015.21.3.417

[32] I. S. Kim, S. A. Won, S. J. Kang & S. M. Shin. (2016). The relationship among nurses' perception of super-leadership,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2),* 148-157.
DOI : 10.11111/jkana.2016.22.2.148

[33] S. Y. Kim, E. K. Kim & B. Kim. (2016). Effects of nurses' self-leadership and team trus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 353-361.
DOI : 10.11111/jkana.2016.22.4.353

[34] M. R. Lee & M. H. Nam. (20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09-517.
DOI : 10.14400/JDC.2014.12.6.509

[35] N. Yang & S.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6-225.
DOI: 10.11111/jkana.2011.17.2.216

[36] L. Lin et al. (2019). Research on characteristics and relevance between positive personality and leadership practice of medical college students. In Proceedings of 2nd International Seminar on Education Research and Social Science (ISERSS 2019), *Paris, France: Atlantis Press.*
DOI : 10.2991/iserss-19.2019.7

[37] S. Yu & Ko, Y. (2017). Communication competency as a mediator in the self-leadership to job performance relationship. *Collegian, 24(5),* 421-425.

DOI : 10.1016/j.colegn.2016.09.002

[38] Y. S. Kang, Y. J. Choi, D. L. Park & I. J. Kim.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2),* 143-151.
DOI : 10.11111/jkana.2010.16.2.143

[39] M. S. Koh, J. W. Suk, H. C. Jeong, K. D. Jeon & D. H. Choi. (2013). The influence of creative action and locus of control on self-leadership among RN-BS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0),* 2059-2068.
DOI : 10.5762/KAIS.2013.14.10.5059

[40] S. Isfahani et al. (2015). Nurses' creativity: advantage or disadvantage. *Iranian Red Crescent medical journal, 17(2),* e20895.
DOI: 10.5812/ircmj.20895

[41] A. Górska. (2016). Gender differences in leadership. *Studia i Materiały / Wydział Zarządzania. Uniwersytet Warszawski, 1,* 136-144.
DOI : 10.7172/1733-9758.2016.20.10

[42] H. M. Son, S. Oh & H. Y. Jang. (2018). Adaptation experienc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A meta-synthesis stud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391-405.
DOI : 10.5977/jkasne.2018.24.4.391

[43] Y. Han & Y. Park. (2013).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job involvement on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462-469.
DOI : 10.11111/jkana.2013.19.4.462

[44] H. Moon. & M. H. Sung. (2016). Impact of ego-resilience,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job satisfaction in emergency department (ED)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4),* 268-276.
DOI : 10.5807/kjohn.2016.25.4.268

[45] H. S. Jang & Y. J. Lee. (2010).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1053-1073.
DOI : 10.15703/kjc.11.3.201009.1053

[46] S. M. Cheon & M. O. Kim. (2015). The effect of program of self-leadership o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39,* 453-477.

[47] Y. B. Park & M. S. Kim. (2017). The influence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5), 494-503.
DOI : 10.11111/jkana.2017.23.5.494

[48] M. O. Yu.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management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406-413.
DOI : 10.5762/KAIS.2019.20.7.406

[49] R. Sunindijo & P. Zou. (2011). The influence of project personnel'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skil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onstruction safety climate development. *In Proceedings of CIB W099 2011 Conference. Washington, D.C., USA : CIB Inter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50] E. Y. Jang, K. H. Lee & D. J. Park. (2013).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self-leadership on creativit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5),* 115-132.
DOI : 10.14396/jhrmr.2013.20.5.115

[51] M. J. Song & H. R. Lee. (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human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using a university liberal-art cours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269-291.

[52] E. I. Jeong. (2009). Effect of problem solving discussion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0(2),* 27-49.

김 두 리(Doo Ree Kim)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가족, 삶의 질, 극복력
· E-Mail : kdr2015@konyang.ac.kr

임 효 남(HyoNam Lim) [정회원]

· 2015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암환자, 노인, 치매, 전문간호사, 삶의 질
· E-Mail : hnlim@konyang.ac.kr

김 진 일(Jin-il Kim) [정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중환자간호, 치매, 스트레스, 간호교육
· E-Mail : neoreva@hanmail.net